

## 함세덕 희곡 <산사람들> 연구

- 텍스트 문제와 제주4·3 인식을 중심으로

김 동 윤\*

###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산사람들>에 나타난 제주4·3 |
| II. <산사람들> 텍스트의 문제 | IV. 마무리                |

### 국문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함세덕의 <산사람들>(1949~50)에 대한 여러 연구물들이 나왔다. 제주4·3을 형상화한 이 희곡은 4·3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북한의 문예지 『문학예술』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문제와 제주4·3 인식의 고찰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

<산사람들>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2막 3장의 작품임을 전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필자는 최근 제3막과 제4막 텍스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군정 수뇌부의 대책회의 관련 내용이 제3막에, 입산자들의 생활과 토벌대와의 싸움이 제4막에 각각 그려짐으로써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제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5막까지 있는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1949년 평양에서 소년 빨치산 연락병 배역을 맡아 <산사람들> 공연에 참여했던 육철식이 5막 7장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내용과 짜임을 보더라도 육철식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작품은 1948년 해주, 1949년·1950년 평양 등 총 3회 무대에 올려졌고, 2회 공연 후에 현전하는 대본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사람들>의 등장인물을 보면, 부을나·삼바우처럼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도 있지만 실존인물과 관련된 인물들도 많다. 안재홍·송호성·김영배·조병옥 등은 실존인물이 그대로 나온 경우이며, 선우기승·부용철 등은 성이나 이름의 일부만 살짝 바꾸어 나온 경우이고, 김석민·최진렬 등은 특정 인물(혹은 둘을 뒤섞은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물 설정 양상은 4·3이 반미 통일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4·3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생략되어 나타난다. 4월 3일의 무장대의 전과(경찰과 우익 인사의 피해) 규모를 과장하고 있으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 사이에 합의되었던 4·28평화회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이는 무장대와 토벌대를 선악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봉기와 항쟁, 나아가 인민공화국 건설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점에서도 북의 전략이 반영된 작품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사람들>은 무장대와 제주도민들의 입산 생활이 잘 드러난 작품이어서 주목된다. 입산 투쟁을 하다가 월북한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창작된 희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에서 그려진 입산 생활은 상당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함세덕의 <산사람들>은 4·3 당시의 입산 생활을 구체적

으로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함세덕, <산사람들>, 제주4·3사건, 5막 7장, 입산 생활, 리얼리티

## I. 들머리

함세덕(1915~1950)은 한국현대회곡사의 대표적인 극작가다. 1930년대 중반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한국 사실주의극을 선도한 그는 일제말기에는 친일 목적극도 발표하였으며 해방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서의 이념극을 썼다. 그는 1947년 중후반기 즈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인민군 선무반 제2진으로 남하하던 중 6월 29일 서울 신촌 인근에서 수류탄 오발 사고로 사망하였다.<sup>1)</sup> 말하자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2010년은 전장에서 비명횡사한 함세덕의 60주기이기도 하다.

함세덕이 월북한 후에 쓴 작품은 <소위(所謂) 대통령(大統領)>과 <산(山)사람들>로, 1990년대 중반에야 남한에 소개되었다. 전자는 1949년 12월 유엔한국위원단의 입국을 전후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승만 정부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며, 후자는 1948년 4월에 발발한 제주4·3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직설적인 대화와 서정성의 결여로 작품성이 떨어지는 <소위 대통령>에 비해 <산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주목되어 왔다.<sup>2)</sup> 특히 제주4·3은 남북분단의 문제가

1) 함세덕의 생애에 관해서는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윤진현, 『풍경, 함세덕』, 다인아트, 2008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장혜진, 김문홍, 김만수, 김성현 등의 연구자들은 <소위 대통령>에 비해 <산사람들>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혜진, 「함세덕 회곡의 지속과 변모」, 이상우 엮음, 『함세덕』, 세미, 2001, 209-301쪽; 김문홍, 「함세덕 회곡의 극적 전략과 의미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96, 165-166쪽; 김만수, 위의 책, 243-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 발생한 사태이면서 한국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산사람들>을 재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산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함세덕 회곡론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거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작가의 작품과 함께 논의된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둘러싼 치밀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그다지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함세덕의 <산사람들>의 텍스트를 둘러싼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작품에 제주4·3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고 어떤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품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회곡이라는 장르로서의 성격이나 특징보다는 제주4·3을 다룬 북한문학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함을 밝혀둔다.

## II. <산사람들> 텍스트의 문제

함세덕의 <산사람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텍스트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이 모두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함이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연구 논저들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에, 여기서 이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함세덕의 <산사람들>은 2막극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에서 간행된 『문학예술』 1949년 12월호에 실린 제1막과 1950년 1월호에 실린 제2막이 전부라는 것이다. 다음은 제1막과 제2막의 개요다.

146쪽; 김성현, 「함세덕 회곡 연구—해방 전후 회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55-59쪽.

<제1막>

- 1-1. 고제곤 어머니와 부용철의 누이 을나가 아들과 오빠의 안위에 대해 걱정한다.
- 1-2. 을나는 제곤에게 어업조합 서기와 미군의 해녀들에 대한 횡포를 하소연하고, 제곤모는 구국투쟁 사업도 좋지만 생업에 신경 쓰라고 제곤에게 말한다.
- 1-3. 구국투쟁 레포선 아지트가 발각되고 진옥이 체포되자 제곤, 용철, 송백이 아지트를 옮겨 김석민 위원장을 피신시키기로 한다.
- 1-4. 화북지서장 오란수, 전병술 형사, 서북청년회 감찰부장 선우기승 일행이 진옥을 체포하고 제곤 집에서 물을 얻어마시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승만이 당선되면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5. 제곤모, 부장의, 삼바우, 해녀들이 북조선의 인민해방 정책을 부러워하며 미군정을 비난하고, 제곤은 단독선거 저지를 통해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하자고 역설한다.
- 1-6. 제곤이 용철에게 상부에 건의해 무력투쟁할 것을 주장하나 용철이 때를 기다리자고 한다.
- 1-7. 김석민을 피신시키기 위해 용철이 민족청년단으로 위장하여 경찰과 서청원들을 해변으로 유인한다.
- 1-8. 유인작전이 탄로나고 용철이 수배된 인물임이 판명되어 심한 문초를 당한다.
- 1-9. 용철이 총맞아 죽자 해녀들이 항쟁을 일으키려는데 제곤이 만류하고, 상부 지시를 따라 입산하여 빨치산이 되기로 결의한다.

<제2막>

- 2-1. 유격대 사령관 김석민이 대원들을 다그쳐 훈련시키면서 미제국 주의를 격멸하고 통일인민공화국을 세우자고 강조한다.
- 2-2. 대원들이 조속한 무력투쟁을 건의하자 석민은 더 힘을 기르며 기다리자고 한다.
- 2-3. 취사반장 을나가 식량부족을 걱정하며 지서습격을 건의하니 석민은 제곤이 식량과 무기를 구하러 갔으니 기다리자고 한다.
- 2-4.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표고버섯 번식 작업을 시작한다.
- 2-5. 석민과 작전참모가 북조선이 제안한 정당사회단체 남북연석회의의 성공 여부를 걱정한다.

- 2-6. 보급부대가 도착해 제곤이 위험에 빠졌다고 보고하자 후원부대를 보냈는데,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습격을 개시하라는 당 본부의 지시를 송백이 전달한다.
- 2-7. 제곤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자 모두 오돌토기를 부르며 전의를 다진다.
- 2-8. 경찰이 유격대 아지트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지시를 습격하자는 제곤의 제의를 석민이 수락하고, 제곤은 삼양부대를 이끌고 습격을 위해 산을 내려간다.

모리배와 미군정 당국의 횡포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주민 희생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이 입산하게 된다는 것이 제1막의 내용이고, 사령관 김석민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한 끝에 드디어 봉기를 결행한다는 것이 제2막의 내용이다. 여기까지 본다면 <산사람들>은 왜 4·3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이다.

함세덕의 <산사람들> 1·2막을 처음으로 우리 학계에 소개한 이는 장혜전이다. 그는 ‘월북 이후 작품 최초 수록’이라고 밝히며 출간한 『함세덕 회곡 선집』<sup>3)</sup>에서 <산사람들>을 ‘전2막’이라고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막이기는 하지만 원고지 360매 정도 분량의 꽤 방대한 작품이다. 1949년 12월과 1월 북한에서 발행된 잡지 『문학예술』에 전·후반부가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제주4·3항쟁의 前史를 반미군정, 반이승만 정권의 민중적 시각에서 극화하고 있어 4·3항쟁을 사건 당대에 다룬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제주도 어민들의 삶 속에 초기 회곡의 서정성이 남아 있어 이념극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일면을 보여준다. 월북하여 쓴 첫 작

3) 『함세덕 회곡 선집』(시인사, 1995)에 수록된 <산사람들>에는 오류가 여럿 보인다. 등장인물에서 ‘삼바우’를 ‘산바우’라고 했는가 하면, 양준수의 직책을 ‘대한독촉지부장’인데 ‘대한독촉지부장’으로 엉뚱하게 옮기기도 했다. 한자를 잘못 읽어서 ‘위요(圍繞)’를 ‘위효’로, ‘조명(鳥名)’을 ‘도명(鳥名)’으로, ‘잡방(雜房)’을 ‘지방’으로 표기한 부분도 보이며, ‘삼양’을 ‘삼탕’으로, ‘맨둔지오름’을 ‘맨논지오름’으로 지명을 잘못 옮긴 경우도 있다.

품이다.<sup>4)</sup>

이러한 장혜전의 견해에 따르면 함세덕의 <산사람들>은 2막 3장(1막이 2개의 장, 2막이 1개의 장이기에 모두 3장임)의 작품이다.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장혜전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가운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김문홍은 “이 작품은 2막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단정하면서 “제주 4·3항쟁의 치열한 모습을 담고 있기보다는, 4·3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적인 배경을 이야기의 축으로 한 前史에 해당하는 작품”<sup>5)</sup>이라고 하였고, 김수미는 “<산사람들>에서 1막은 군, 경의 제주도 어민의 착취를 보여주고, 곧이어 빨치산 봉기를 준비하는 단계가 전개된다. 이어 2막에서는 본격적인 빨치산 생활모습이 그려진다.”<sup>6)</sup>라면서 아무 의심 없이 2막 작품임을 말하였으며, 김성현은 “월간지 『문학예술』 1949년 12월호에 1막이, 1950년 1월호에 2막이 연재되었”<sup>7)</sup>다고 하였다. 김만수는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sup>8)</sup>이라고 하였으며, 김재용도 “이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sup>9)</sup>다고 언급하였다. 김재석<sup>10)</sup>도 『문학예술』 1949년 12월호의 1회와 1950년 1월호의 2회분을 대상으로 논하면서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

제2막으로 끝난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 이는 노제운밖에 없는 것 같다. 그는 『함세덕문학전집』<sup>11)</sup>을 엮으면서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4) 장혜전 편저, 『함세덕 회곡 선집』, 289쪽.

5) 김문홍, 앞의 논문, 168쪽.

6) 김수미, 「함세덕 회곡의 대중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9, 38쪽.

7) 김성현, 앞의 논문, 58쪽.

8)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144쪽.

9) 김재용, 「4·3과 분단극복—북한문학에 재현된 4·3」, 『제주작가』6, 실천문화사, 2001, 179쪽.

10) 김재석, 「1940년대 후반기 함세덕 회곡 연구」, 『어문학』92, 한국어문학회, 2006, 323-349쪽.

11) 『함세덕문학전집』2(지식산업사, 1996)에 실린 <산사람들> 텍스트도 오류가 꽤

검토하고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현전하는 제2막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학정을 참지 못해 빨치산이 된 제주도민들이 지서를 습격하기 위해 유격부대를 형성한 장면을 끝으로 하고 있는데, 제2막의 끝을 완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전체적인 구조나 마지막 대사 처리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기에서 연재가 중단되었거나 나머지 부분이 북한에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노제운의 이러한 추측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2막 이후에 연재된 부분이 더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제3막과 제4막 연재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3)</sup>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3막>

- 3-1. 띠, 안재홍, 조병옥, 송호성이 서울에서 급거 달려와 바도리취, 김영배, 스미스 등과 함께 제주도청에 모인 가운데 최진렬이 뒤늦게 도착한다.
- 3-2. 피습 내용, 토벌 경과, 빨치산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이어진다.
- 3-3. 국방경비대가 토벌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최진렬이 신중론을 제기한다.
- 3-4. 조병옥과 충돌하던 최진렬은 띠의 호통 후에 국방경비대 출동을

많다. 등장인물 소개에서 ‘똥똥한 해녀’가 빠졌고, ‘오란수 화북지서장’을 ‘오란수 어업조합이사, 화북지부장’으로 하는가 하면, ‘잡방(雜房)’을 ‘유방(維房)’으로, ‘토병(土瓶)’을 ‘토판(土版)’으로, ‘사시상록(四時常綠)’을 ‘사시상선(四時常線)’으로, ‘남역(南域)’을 ‘남성(南城)’으로 등 한자를 잘못 읽은 경우도 있고, ‘떼’를 ‘뺨’로, ‘가슴’을 ‘가름’으로, ‘봉화’를 ‘등화’로, ‘동구’를 ‘등구’로, ‘그점’을 ‘그럼’으로 등과 같이 틀리게 옮긴 경우도 많다.

12) 노제운, 「자유를 향한 憧憬에서 닫힌 현실로」, 『함세덕문학전집』2, 576쪽.

13) <산사람들> 제3막과 제4막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에 소장된 자료를 입수한 것이다.



결정한다.

- 3-5. 유격대의 지뢰에 경찰기동대가 희생됐다는 보고를 오란수가 하는 도중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편지가 묶인 돌팔매가 날아온다.
- 3-6. 경찰 토벌책임자로 오란수를 임명하고는 도민 회유책이 실패하면 스파이작전을 쓰기로 한다.
- 3-7. 최진렬이 토벌을 자신하며 나가던 중 날아든 수류탄이 터지자 모두 새파랗게 질린다.

#### <제4막>

- 4-1. 오름 고지로 제주읍 근방의 농민들이 5·10선거 보이콧을 위해 속속 올라오는 가운데 유격대와 부락민들이 오락회를 한다.
- 4-2. 제곤 등이 5·10단선 분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한다.
- 4-3. 유격대로 위장한 CIC대원이 총 맞아 도주하는 척하며 고지로 들어와 정보를 캐내고는 중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 4-4. 제곤이 스파이를 의심하는데 을나가 그를 목포수상경찰서에서 본 것 같다고 한다.
- 4-5. 제곤은 스파이를 문초한 끝에 토벌대가 인민들을 강제투표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음을 알아낸다.
- 4-6. 석민이 제곤을 찾아와 토벌대를 골짜기로 유도해 섬멸한 후 선거사무소 부시는 작전을 함께 세운다.
- 4-7. 부락민들을 뒷산 골짜기로 이동시키던 중 빼꾸기 소리를 들은 제곤과 을나는 용철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 4-8. 제곤 일행이 토벌대의 공격에 악전고투하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갔던 인민들이 도우러 왔다가 모두 포위된다.
- 4-9. 최진렬이 이끄는 토벌대는 하산을 거부하는 부락민들과 제곤 일행을 동굴로 집어넣고 입구에 나무를 쌓아 태워 죽이려고 한다.
- 4-10. 문소위와 일부 경비대원이 일반 도민을 죽여선 안 된다고 하자 최진렬은 그들까지 동굴에 집어넣고 불 지르려고 한다.
- 4-11. 그때 석민이 이끄는 유격대원들이 나타나 모두 구하고 오란수와 량준수를 처형한다.
- 4-12. 사기충천한 유격대원들이 작전수행을 위해 해안 쪽으로 내려가

고 인민들은 “산사람들 만세”를 부르며 그들을 전송한다.

제주도청에 미군정 당국자와 경찰 책임자, 국방경비대 책임자 등이 급히 모여서 토벌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제3막으로 나오고, 5·10선거를 반대하며 주민들이 입산한 가운데 오름 주변에서 유격대와 토벌대가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제4막을 이룬다. 그런데 제4막의 끝은 제2막의 끝과 유사하다. 2막에서는 4월 3일<sup>14)</sup> 봉기가 시작되면서 유격대원들이 경찰지서 습격을 위해 산을 내려가고, 4막에서는 역시 유격대원들이 5월 10일 선거사무소 습격을 위해 산을 내려간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4막으로 끝난 것인가? “遊擊隊員들, 빨치산의 노래도 높이 意氣沖天하여 산을 내려간다. 人民들 “산사람들 만세” 불으며 그들을 전송한다.”(제3막, 152쪽)<sup>15)</sup>로 막을 내리고 있어서 전체가 완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산사람들>은 모두 5막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1949년 2월 8일 평양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산사람들> 연극에 출연했던 육철식<sup>16)</sup>은 ‘5막 7장’의 작품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철식은 강동정치학원

14) 이 작품은 4일 새벽에 봉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작가의 실수로 보인다. 장혜전은 이를 작가가 작품을 서둘러 쓴 흔적이라고 보았다. 장혜전, 『함세덕 희곡의 지속과 변모』, 이상우 엮음, 『함세덕』, 세미, 2001, 301쪽.

15) 함세덕의 <산사람들>을 인용할 때에는 막과 쪽수만 ( ) 속에 밝히기로 한다. 제1막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기관지인 『문학예술』 1949년 12월호(제12호), 제2막은 1950년 1월호(제13호), 제3막은 1950년 2월호(제14호), 제4막은 1950년 3월호(제15호)에 각각 연재되었다.

16) 육철식은 193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하여 청원공립초등중학교 3학년이던 1948년 10월 22일 월북하였다.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까지 강동정치학원생이었으며 1949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평양연락소 근무를 거쳐 1950년 6월 26일 전쟁에 투입되어 인민군 총참모부 경찰부와 조선로동당 전라남도당부 보도과에서 활동하던 중 1952년 2월 백운산 지구에서 포로가 되었다. 포로수용소 등지에서 생활하던 도중 1952년 10월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문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에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

에서 훈련 받던 시절에 일과 후 시간에 1개월여 동안 연습을 거쳐 빨치산 소년 연락병으로 <산사람들> 연극에 출연했던 인물이다.

육철식: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내가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기억력을 많이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5막 7장에다가 내가 상춘 배역으로 나왔거든요.

김동윤: 삼춘 대역?

육철식: 상춘 배역(配役)이요. 그랬었는데 그 <산사람들> 5막 7장 줄거리를 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sup>17)</sup>

인용한 대담 내용을 보면, 육철식이 기억력을 많이 상실하여 줄거리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5막 7장'임을 분명히 꼬집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막 몇 장의 작품인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는 5막 7장이라고 먼저 말하였다. 육철식은 자신의 체험을 기술한 『강동정치학원』에서도 <산사람들>이 5막 7장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 연출가 안영일 씨가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금번 학생 서클에서는 함세덕 동무가 쓴 <산사람들> 5막 7장짜리 연극 공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경험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동무들은 무대 뒤에 와서 등록을 하고 가라고 한다.<sup>18)</sup>

<산사람들>(5막 7장)은 제주도 4·3인민항쟁을 주제로 시민군과 경찰이 돌각담(돌담)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처절한 싸움과 아낙네들이 치마에 돌을 주워 나르며 항쟁하는 장면, 한라산으로 입산하여 김달삼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이는 제주도 빨치산을 그린 내용이다.<sup>19)</sup>

17) 김동윤, “나는 <산사람들>의 소년 연락병이었오”—강동정치학원 출신의 빨치산 생존자 육철식, 『제주작가』 2008년 가을호, 208쪽. 이는 김동윤이 김정훈·김강곤과 함께 2008년 10월 12일 청주에서 육철식을 만나 취제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인용문에서 밑줄은 인용자의 것이며, 이하 모두 마찬가지다.

18)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 1998, 106쪽.

19) 위의 책, 108쪽.

4막에 들어가서 토벌경찰과 치열한 전투 끝에 포위되어 육박전을 감행하며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유격대원의 시체를 가운데 놓고 산상에서 장례식을 올리는 장면에서는 김일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모든 관객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는 모습들이 보였다. 5막 7장 <산사람들> 연극은 마지막 장면에서 「제주도 빨치산의 노래」 합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고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sup>20)</sup>

이러한 육철식의 증언은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막에 들어가서 토벌경찰과 치열한 전투 끝에 포위되어 육박전을 감행’한다는 인용문의 진술은 4막에 나오는 오름 전투 장면과 일치한다.

濟坤, 웨치며, 들어서는 討伐隊 한 놈을 넘귀트리고 銃을 빼서 銃대로 두 놈을 거꾸르트리다. 그리하여 肉彈으로 개놈들을 무찔른다. 삼바우, 長達도 肉彈으로 最後의 힘을 다하여 차고 치고 싸운다. 그러나 뒤에서 뒤에서 꼬리를 연달아 올라오는 國警과 警察의 大部分에 衆寡不敵인 양 孤軍奮鬪한다. 이때 “저놈들 죽어라”의 喊聲과 함께 아까 山으로 올라갔든 인민들이 몰려 내려온다. 그리하여 亦是 肉彈으로 개놈들을 물어뜯고 應戰한다. 그러나 이 肉彈戰은 敵의 野蠻의 殺戮 앞에 많은 犧牲者를 내고 完全包圍되어 움짱 못하게 되고 만다.(제4막, 141-142쪽)

육철식의 증언을 따른다면 제5막은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제1막이 2개의 장이고, 제2~4막은 모두 1개의 장이므로, 제5막이 2개의 장이어야 총 7장의 작품이 된다.

그렇다면 제5막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제4막까지가 ‘해안마을(탄압과 입산)→오름(투쟁준비와 시작)→읍내도청(토벌대책 마련)→오름(충돌과 싸움)’의 구조인 것으로 보아 마지막 제5막은 일단 다시 해안마을로 공간을 이동하여 단선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으로 이어졌으리라는

20) 위의 책, 116쪽.

추정이 가능하다.

5·10단독선거 분쇄를 성공리에 마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고, 지하선거까지 성공하여 김석민 일행이 해주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데서 끝났을 수도 있다. 필자가 추측한 바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제주4·3을 문학화한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1948. 9)을 보면 함세덕 회곡 <산사람들>의 결말을 추론할 수 있다. <한나산>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 3월부터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열린 8월 말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사시는 그 내용에 따라 1~3장, 4~7장, 8~9장으로 3대분 되며, 각각의 내용은 4·3붕괴 직전의 상황, 붕괴의 시작과 투쟁 양상, 선거투쟁과 인민대표자회의의 참석 등으로 정리된다.<sup>21)</sup> 다음은 <한나산>의 끝부분이다.

북조선/북조선/민주 조선의 기지 북조선!/위—○ 위—○/증산을 고향  
치는/공장이여! 광산이여!/풍족한 새 살림에/흙냄새 흐뭇한 대지여!/풀  
섶을 덩구는 조약돌 하나에도/민주의 햇빛이 살찌고/스치는 한 줌의 바  
람결도/건설의 입김으로 행복한/초가을 해주시—/(...)//수양산 산머리  
가 떠나갈 듯/우렁찬 박수 박수/열광의 환호성 솟음치며/—김 장군이  
다!—김 장군이다!/김일성 장군이 들어오신다!/꿈에나 생시에나/북쪽  
하늘을 바라보며/감옥에서 지하에서/한나산 싸움터에서/석굴 속에서.../  
마음 지척에 모시여 그리웁던/김일성 장군!<sup>22)</sup>

이처럼 <한나산>은 인민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 장군을 만나는 장면에서 작품이 끝나고 있는데, <산사람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산사람들>의 경우 4막까지는 1948년 3월 초순부터 5월 10

21) 김동윤, 「단선 반대에서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도정—강승한 서사시 <한나산>론」,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190-191쪽.

22) 강승한, <한나산>, 『한나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86-89쪽.

일 남한의 단독선거일까지 2개월여의 기간이 설정되었다. 선거투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이 내렸으므로, 선거투쟁의 결과와 지하선거에 이은 인민대표자회의 참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제5막이 제6장과 제7장으로 이루어졌겠기에, 강승한의 <한나산>과 마찬가지로, 제6장은 제주도에서의 선거투쟁의 승리로, 제7장은 해주에서의 인민대표자회의 장면으로 각각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함세덕은 “해주 인민회당에서 열린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서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sup>23)</sup>기 때문에 해주 장면까지 작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는 제주도에서 김달삼 일행이 참석한다. 8월 25일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 가운데 제주도 대표로는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등이 포함되었다. 김달삼은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앞서 벌어진 ‘입후보자에 대한 토론’ 시간에 토론자로 나서 제주4·3에 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sup>24)</sup> 따라서 <산사람들>이 5막의 작품이라면 제주도 인민대표들이 해주대회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김일성을 만나는 장면까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배역과 관련한 육철식의 증언을 보더라도 <산사람들>은 5막까지 이어지는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육철식은 소년 빨치산, 동료인 문귀는 소녀 빨치산 배역을 각각 맡았다.

영식(육철식의 가명: 인용자 주)이가 맡은 배역은 레포(연락)를 전달하다 체포되어 갇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도망쳐 나오는 어린 소년 레포원인 상춘 역으로, 문귀는 총탄이 비오듯 퍼붓는 속에서도 단신 적진으로 뛰어가 수류탄을 던지고 퇴로를 열어 대원들의 퇴각을 돕는 소녀 빨치산 대원으로 각각 배역을 맡았다.<sup>25)</sup>

23) 윤진현, 앞의 책, 38쪽.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위원회, 2003, 239-240쪽.

25) 윤진현, 앞의 책, 108-109쪽.

육철식이 배역을 맡았다는 ‘상춘’이란 인물은 희곡의 제4막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춘은 제5막에 나와서 연락병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니면 1949년 2월의 공연 당시에 존재했던 배역이 그것을 수정보완하고서 『문학예술』에 연재된 텍스트에서는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문귀가 맡았다는 소녀 빨치산 대원은 희곡의 주요 인물인 ‘부을나’인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제1막의 2장에 나오는 ‘소녀’일 수도 있다. 문귀가 맡은 배역도 제5막에서만 등장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산사람들>은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26)</sup> 아마 맨 처음의 <산사람들> 공연은 해주대회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김달삼 일행이 8월 2일에 제주를 떠나서 10일 이전에 해주에 도착했던바,<sup>27)</sup> 21일부터 시작된 인민대표자대회까지 달포가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테니, 이 기간에 함세덕과 함께 항쟁의 내용을 담은 연극을 준비하여 거칠게나마 공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주 공연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배역의 일부를 맡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해주 공연에서 반응이 좋게 나오자 본격적인 공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1949년 2월의 육철식을 비롯한 강동정치학원생들의 평양 공연이었던 것 같다. 2월 8일 인민군창건기념일에 국립극장에서 공연하였다고 육철식은 증언하였다.<sup>28)</sup>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산사람들> 공연이 1950년 5월 10일부터 평양 국립극장에서 이루어진다. 『투사신문』 1950년 5월 10일치에는 <산사람들> 공연 광고가 실려 있다. “제주도 인민들의英勇적 구국투쟁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이 광고에는 “함세덕 작, 안영일 연출”임이 명시되어 있

26) 위의 책, 38쪽.

2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3, 전예원, 1995, 252-254쪽 참조.

28) 육철식은 인터뷰에서는 1949년 1월 1일에 공연했다고 했지만, 이에 앞서 『강동정치학원』에서는 2월 8일이라고 밝혔던바, 후자의 기억이 맞는 것 같다.

다. 아마도 이 공연을 결정판 <산사람들> 공연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니 이 공연이 마지막으로 올려진 공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함세덕이 1949년 12월부터 1950년 3월까지 4회(혹은 4월까지 5회)에 걸쳐 『문학예술』에 연재한 <산사람들>은 1950년 5월 공연의 대본으로 보인다. 함세덕은 1948년 8월 해주에서 처음 공연한 이후 강동정치학원생들에게 배역을 주어 1949년 2월에 두 번째 공연을 해 본 다음에 다듬어서 정본 <산사람들> 텍스트를 마련하고, 그 대본으로 1950년 5월 공연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산사람들>에 나타난 제주4·3

<산사람들>은 4·3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북한에서 발표되고 공연되었으며, 입산투쟁을 벌이다가 월북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씌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북한의 4·3 인식과 더불어 입산자들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 1. 인물 설정의 양상에 나타난 4·3 인식

<산사람들>에서 인물 설정의 양상을 보면 작가(나아가 당시 북한)의 4·3 인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을 실존 여부나 에펠레이션(appellation) 등과 관련하여 본다면, ①실존인물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 ②실존인물의 성만 달리하거나 이름을 살짝 바꾼 경우, ③특정인물을 모델로 삼은 경우, ④완전한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경우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첫째, 안재홍(安在鴻), 송호성(宋虎聲), 김영배(金永培), 조병옥(趙炳玉), 뎐(딘; William F. Dean), 바도리취(패트릿지; John S. Partridge) 등



은 실존인물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미군정, 경찰, 국방경비대 등 항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안재홍은 1947년 2월 5일 미군정청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8년 8월 15일까지 근무한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도 물론 민정장관으로서 제3막에 등장한다. 지문에서는 “安在鴻은 機會主義의 性格 그대로 恒時 이 사람 저 사람 顏色만 살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輕하지 않은 것은 그의 史學者風의 點잔에 掩蔽되어 있기 때문이다.”(제3막, 121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책회의 중에도 그는 “侮辱를 당한 듯 하여 慷慨했으나 광견에 물린 것은 더 겁이 남으로 그냥 쑥 다물어버린다.”라거나 “말렸다가 무슨 타박을 맞지나 않을까 두려워 어안이 병병한 채 兩人的 눈치만 살피고 있다.”(제3막, 135쪽)고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인다. 당시에 북한에서는 좌우합작 활동을 벌인 안재홍을 기회주의자로 인식했던 것 같다.

송호성은 4·3 당시에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이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서 인민군으로 전신하여 인민군 소장이 된 인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인물로 볼 수 있겠지만, <산사람들>은 전쟁 전에 발표된 작품이기에 그가 다소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 그에 대해서는 “宋虎聲은 五十勢 若干 白髮이 희끗희끗하다. 亡命臨政과 함께 中國에서 歸國 米帝 侵略道具인 國防警備隊 創設者의 하나이다.”(제3막, 121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토벌 군경 측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덜 비난당하는 인물이다.

김영배는 1947년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청장으로 부임, 1948년 4월까지 재직하게 된다.<sup>29)</sup> 작품에서는 제주도경찰청장으로 나온다. “金永培는 解放 前 地方都市의 私立中學 英語 敎師로 解放 後 재빨리 韓民黨에 加入 英語와 日帝時 鑛山 뿌로커로씨의 趙炳玉과의 關係로 一躍 出世한 者이다.

29)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34쪽.

키는 작고 醜貌에다 卑屈하고 吝嗇하고 處世에만 재빠른 反面 反逆者 共通의 殘虐性을 가졌다.”(제3막, 121~122쪽)고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948년 5월에는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최천(崔天)이 부임한 시점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김영배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두 인물의 교체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에 김영배를 계속 제주경찰청장으로 나오게 했을 것이다.

조병옥은 미군정 당시 경찰총수인 경무부장으로 있으면서 4·3에 대한 강경토벌을 주도한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도 강경토벌론자로서의 입장이 뚜렷이 부각된다. “趙炳玉은 문둥이 같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이리 속의 늑대처럼 室內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있다.”(제3막, 121쪽)라며 ‘문둥이’와 ‘늑대’라는 단어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개 같은 년들… 그년들 가랑일 찢어놀 것이지 그걸 그냥 둔단 말이야.”(제3막, 124쪽)라고 험한 말을 마구 쏟아낸 것은 물론이요, “빨갱이들을 최후의 한 놈까지 몰살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전 귀양살이허듯 말이나 맥이구 농사나 짓게 해야 합니다.”(제3막, 131쪽)라거나 “도민이구 산악자식들이구 구별헐 거 있소? 총 메운 모두 유격대구 내려놓문 농사꾼이라는데…… 그저 남녀로소 구별헐 거 없이 로케트포루 무차별 학살허시오.”(제3막, 141쪽)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시종일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다.

패트릿지는 미군 대위로서 경찰고문관으로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제주 경찰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1947년 2월부터 12월까지만 제주에 근무하였지 정작 1948년 4·3이 발발했을 시점에서는 제주를 떠나 있었다.<sup>30)</sup> 1947년 3·1사건 이후의 파업과 검거·체포 과정에서 투쟁세력에게 부정적 인물로 각인되었기에 1948년 상황에

30)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162쪽 참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134쪽에는 1947년 6월초에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서도 계속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는 “文科大學을 나온 狡猾한 所謂 亞米利加式 紳士”(제3막, 121쪽)로 그려져 있다. 북한 작가인 양의선의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2000)에서도 팻트릿지는 “변태성욕 자에다가 악랄성을 겸비한 인물로 등장”<sup>31)</sup>하는바, 같은 맥락의 인물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딘은 미군 소장으로서 4·3 당시에 남한의 군정장관을 맡고 있었다. 그는 4·3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5월 5일에 제주도를 다녀간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제11연대 본부가 설치된 제주농업학교에서 열린 박진경 연대장 고별식에서 추도사를 하기도 했다. “老獠 冷酷 權謀術策 野蠻性 殘忍性을 가진 參謀系 陸軍中將”(제3막, 121쪽)이라고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음흉한 제국주의적 마수가 작용하여 폭발한 것이 4·3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직결”<sup>32)</sup>된다고 하겠다.

둘째, 실존인물의 성만 달리하거나 이름을 살짝 바꾼 경우로는 부용철과 선우기승을 들 수 있다.<sup>33)</sup> 부용철은 의도적인 것이 확실하지만, 선우기승의 경우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

부용철은 김용철(金用哲)에서 성만 바꾸었는데, 제주도의 토속 성씨인 부씨(夫氏)를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품에서 부용철의 여동생은 부을나로 나오는데, 부을나는 삼을나신화(삼성신화)의 삼신인(三神人) 중 한 명이면서 부씨의 시조(始祖) 이름이기도 하다. 제주공동체의 전면적인 항쟁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에펠레이션으로 보인다.

실존인물 김용철은 4·3 봉기 직전에 희생된 인물이다. 조천중학원 2

31) 김동윤,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205쪽.

32) 위의 책, 206쪽.

33) 장혜진도 부용철과 선우기승을 실존인물과 건주어 논의한 바 있다. 장혜진, 「함세덕 회곡의 지속과 변모」, 앞의 책, 293쪽.

학년 학생이던 그는 조천지서에 연행되었다가 유치 이틀 만인 3월 6일에 고문에 의해 사망하였다.<sup>34)</sup> 회곡의 부용철은 김석민을 도피시키다가 경찰에 붙잡혀 시비 끝에 피살된다. 그는 지서장의 총을 맞고 죽으면서 “동무들, 내 원순 갇아줍서. (...) 그리고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을 꼭 세워주우다……”(제1막, 149~150쪽)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지서에서 죽는 것으로 그리지 않고 마을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선우기승은 선우기성(鮮于基聖)에서 이름의 끝만 비슷한 발음으로 살짝 바꾼 경우다. 선우기성은 평안북도 출신으로서 서북청년회의 지도자였다. 작품에서 선우기승은 서북청년회 감찰부장으로 나온다. “專門學校出身의 平北 地主의 아들로 追放當하여 온 者”(제1막, 132쪽)로 이력이 정확히 나오는 걸 보면 ‘기성’을 ‘기승’으로 바꾼 것은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선우기승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를 비롯한 서북청년회원들의 행태와 관련된 다음의 지문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이때 野卑한 口號와 함께 鮮于基承 以下 西靑員들이 警官機動隊 한 놈과 들어선다. 西靑員들은 대개 米軍 配給品을 입었고 自轉車 용수철, 電線 말은 것, 革帶, 水道 파이프 등을 들었다. 그들의 蠻行은 殘虐非道 酸鼻悽絶한 文字 그대로 斷末魔적이다.(제1막, 141쪽)

셋째, 김석민, 최진렬, 문일준은 실존인물이 변형된 경우로 판단된다. 김석민은 이름을 바꿨을 뿐 특정인물을 거의 그대로 모델로 삼았고, 최진렬은 두 인물을 조합하여 대폭 변용하였으며, 문일준도 특정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에펠레이션이다.

김석민의 경우는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金達三)을 변용한 인물이다. 김석민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부장(제1막)에서 유격대 사령관(제2막)이 되

34)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149쪽.

는데, 이런 행적은 김달삼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는 當年 二十八歲, 沈着하고 叡智의이고 果斷性이 豊富한 靑年이다. 조금만 하여도 얼굴이 少女처럼 발개지는 單純한 性格을 가진 一面, 事業에 있어서는 組織的이고 戰鬪的이다.”(제1막, 142쪽)라는 설명에서도 김달삼이 곧바로 연상된다. 강승환의 「한나산」에 나오는 김 선생과 유사한 인물인 셈이다. 용감하고 지적인 지도자로서 냉철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영웅적인 인물이다.

국방경비대 9연대장 최진렬은 실존인물인 김익렬(金益烈)과 박진경(朴珍景)을 조합한 인물이다. 박진경의 ‘진(珍)’과 김익렬의 ‘렬(烈)’에서 한 자씩 따서 명명했다는 것이다. 김익렬은 4·3에서 양심적인 군인이며 4·28협상 등을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5월 5일의 최고수뇌회의에서 강경론자인 조병옥과 격렬한 언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조병옥과 대립하는 부분만 김익렬과 닮았지 나머지 부분은 그의 후임으로 온 강경토벌론자 박진경을 더 닮았다. 군인인 김익렬을 영웅화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면서, 선악구도로 몰고 가기 위한 인물 설정이라고 하겠다. “三十七八歲 外形은 豪傑風이나 卑怯하고 小心한 사나이다. 米軍의 走狗로 있으되 徹底한 反逆을 못하고 微溫의이기 때문에 反動世界에선 憎惡의 對象으로 돼 있는 者다.”(제3막, 122쪽)라고 하여 나이로 볼 때는 당시 김익렬(1921년생)이나 박진경(1920년생)보다 8~9살이 많게 설정되어 있으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반동세계에선 증오의 대상이라고 언급한 점은 김익렬을 떠올리게 한다.

문일준은 국방경비대 소대장으로 나오는데, 이는 문상길(文相吉)을 연상시킨다. 육사 3기인 문상길은 모슬포 제9연대 창설 초기부터 소대장을 거쳐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인물로, 1948년 6월 18일 발생한 박진경 연대장 암살 사건의 주모자다.<sup>35)</sup> 작품에서 문일준 소위는 최진렬에게 “산악 부대는 적극 토벌하되 일반 도민까지 죽이는 건 너무도 흠심치 않습니까?”라거나 “이렇게 인민을 학살하려고 국방경비대에 들었든 건 아니요.”(제

35) 위의 책, 225-229쪽.

4막, 147쪽)라며 이의를 제기하더니, 결국 유격대에 귀순하여 인민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우린 오랜 악몽에서 오늘이야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빵 몇 조각과 몇 푼의 월급을 위해서 인민들의 고귀한 피를 미국 놈들에게 넘겨줬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단순히 그것만으루서 경비대에 들어갔든 건 아닙니다. 우린 경비대가 그레두 장래에 조선의 군대로 성장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이야 비로서 경비대가 침략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이 깨달았습니다. 동무들이 만일 우릴 관대히 용서해주신다면 우리두 오늘부터 인민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제4막, 150쪽)

넷째, 부을나, 삼바우, 장달, 뚱뚱한 해녀 등은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이다. 제주 민중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다. 이들은 모두 순박하고 선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미군정과 모리배에 시달리는 모습을 통하여 제주 민중의 수난상을 드러내고, 그런 까닭으로 자연스럽게 입산하거나 무장대에 적극 협력하는 양상을 그린다.

이상에서 <산사람들>의 인물 설정 양상을 보면, 등장인물들의 선악구분과 대립구조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 없이 미군정과 토벌군정은 악이며 봉기 세력과 제주 민중은 선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 중립적 인물은 찾기 힘들다. 김익렬 같은 양심적인 군인도 그 대로 형상화하지 않고 강경토벌론자 박진경과 혼합하여 최진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부정적인 인물로 몰아버린다.

## 2. 주요 사건과 상황의 형상화 양상에 나타난 4·3 인식

4·3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이 작품의 4·3 인식 양상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4월 3일 봉기 당일 경찰과 우익의 피해 정도, 4월 28일의 평화회담, 5월 5일의 미군정 수뇌부 비밀회의, 5·10선거 보이콧 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우선, 무장대의 성과가 과장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8년 4월 3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이고 우익인사 등 민간인은 사망 8명, 부상 19명<sup>36)</sup>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회곡에서는 “순직 경관 삼십구 명, 부상자 이십 명 그 리구 산으로 끌구 가서 조사한 후에 처단한다구 포로해 간 지서장급이 팔 명, 서청 대청 독촉에서 삼십여 명 도합 배, 백여 명”(제3막, 125쪽)으로 제주도경찰청장 김영배가 보고하고 있다.

김달삼 등 월북 봉기 세력의 증언을 중심으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무장대의 성과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김달삼 일행은 자신들의 투쟁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사실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이라는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기에 무장대의 성과를 과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주도를 본보기로 삼아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끌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인해 그 성과를 부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4·3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던 4·28평화협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김익렬 연대장은 1948년 4월 28일 정오 대정면 구역리에서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을 만났다. 거기서 둘은 네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①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 행위는 배신행위로 본다, ②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③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물론 이 협상이 5월 1일의 오라리 방화사건과 5월 3일의 미군의 공격 명령 등으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4·3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sup>37)</sup> 특히 김달삼이 이 협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회담의 의미는 매우 컸으리라고 본다.

36) 위의 책, 173쪽.

37) 위의 책, 197-198쪽.

그렇다면 김달삼 일행의 증언을 바탕으로 창작된 <산사람들>에서 왜 이 협상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누락되었을까. 미군정과 군경 토벌 세력의 평화적 해결 의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거기에 김익렬과 같은 양심적 군인도 있었다는 점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야만 뚜렷한 선악 구도 속에서 투쟁의 명분을 확고히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김달삼 일행이 그것을 해주에서 증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토벌세력과 협상했다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군정 수뇌부 비밀회의의 내용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제3막의 전체가 그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다. 아직은 봉기 초기였던 1948년 5월 5일, 딘 군정장관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경비대사령관 송호성 준장 등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해 비밀회의를 개최했다.<sup>38)</sup> 김익렬은 이를 미군정 최고수뇌회의로 표현했는데, 그에 따르면 5월 5일 12시에 제주중학교의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참가자는 미군정장관 딘 장군, 민정장관 안재홍,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 경무부장 조병옥, 제주도 군정장관 맨스필드 대령, 제주도지사 유해진,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 제주도 경찰감찰청장 최천, 딘 장군 전용통역관 김씨(목사 출신) 등”<sup>39)</sup> 9명이었다. 작품에서는 맨스필드와 유해진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경찰감찰청장은 최천이 아닌 김영배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일부가 사실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주요 참석자나 회의 내용(조병옥과 김익렬(최진렬) 간의 대립 등)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시에 무장대의 정보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3막 전체를 이 회의의 내용으로 채운 것은 미군정 수뇌부의

38) 위의 책, 203쪽.

39)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2, 전예원, 1994, 338쪽.



부정적인 면모를 최대한 드러냄으로써 4·3이야말로 반미 구국 투쟁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보이콧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에 올려 보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경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왔다.<sup>40)</sup> 「산사람들」에는 이런 사실이 제4막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濟坤 그레 어떻게 다들 올라왔우까?

乙那 예, 대강들 어제밤으로 올라왔구 나머지 사람들두 조금 아까까지 다들 올라왔우다.

濟坤 그럼 부락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우까?

삼바우 화북리에 유자낭구집 할머니 외 다섯 할머니가 도적 지킨다구 막무가내구 안 올라 온다구 허우다.

濟坤 하하하

乙那 그런데 여긴 완전히 선걸 뽀이코트허구 말았지만, 다른 면과 성내는 어떻게 됐는지요?

濟坤 조천, 함덕, 성내, 서귀포 등 원채 놈들의 탄압이 심한 곳은 인민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했고, 다른 면은 여기처럼 전부 올라와 버렸우다, 허지만 성내구 서귀포구 각 선거장엔 저이놈들 가족 빼놓군 그야말로 삼살개 한 마리 열신거리구 있지 않수다. 바도리취놈이 이번에 새로운 토벌고문 뿌라운이란 대좌놈허구 자동찰 타구 순찰 나왔다가 코가 납작해지구 돌아갔다구 합니다.

一同 하하하.(제4막, 121쪽)

주민들을 입산시키는 것이 무장대에게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무장대는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입산 생활이 잘 그려졌다는 점은 <산사람들>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4·3을 다룬 작품들은 많았지만 입산자들의 생활을 구

40)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209쪽.

체적으로 그려낸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유격대원들이 훈련을 하는 장면,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표고버섯 번식 사업을 시작하는 장면 등이 제2막에 나오고, 제4막에서는 주민들이 쌀과 옷가지는 물론 술 담아 먹을 누룩을 갖고 산에 올라가 무장대에 제 공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입산자들의 아지트에 대한 다음의 묘사는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다.

한낮에도 어둑컴컴하고 길이 없어 警察總長 金英培 님의 報告대로 遊擊隊가 들어가기만 하면 개미처럼 行方不明이 된다는 곳이다.

右側에 큰 自然洞窟이 있다. 傳說에 나오는 猛獸라도 棲息할 듯한 陰酸한 굴이다.

左側에 灌木을 잘라서 땡근 樹門, 이 문을 지나 傾斜를 타고 내려가며 깊은 溪谷이 있어 나무수월에 덮혔다. 近處에는 瀑布도 있는 모양이다. 巖盤에 떨어지는 落水 소리가 洞窟을 울려온다.

五十選舉를 뺏이코트하기 위하여, 禾北 三陽 等 濟州郡 근방의 農民들은 모두 率家하고 이 고지로 올라와 버렸다. 山에서는 夫乙那, 삼바우, 장달의 三人이 派遣되어 指揮에 당하고 있다. 幕이 오르면, 삼바우, 乙那 樹門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이미 二幕에서 입은 옷 그대로의 遊擊隊가 아니다. 制服制帽 武器(戰鬪에서 포획한)를 갖추었고 規律 있는 行動을 하는 正規軍을 彷彿케 하는 그것이다.

部落民들 한 떼가 뒤를 살피며 올라온다. 乙那 삼바우 달려가 맞는다.

濟州女中盟休團, 濟州農校盟休團이라고 쓴 腕章에다 竹槍을 든 男女學生 自衛隊員들이 樹門에서 나와 住所, 氏名을 듣고 樹門 안으로 案内하고 들어간다.

樹門 안에서는 籠城코 있는 部落民들과 自衛隊가 오락회를 조직하고 있다.(제4막, 119쪽)

이 작품이 입산 투쟁을 하다가 월북한 김달삼 일행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창작된 희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에서 그려진 위와 같은 입산 생활은 상당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입산 생활과 관련된 창작을 하는 데에도 적잖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봉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북을 선망하면서 김일성을 추어올린다. 작품 속의 제주 민중들에게 북과 김일성은 장밋빛 희망이다.

海女1 빨리 삼팔선이 끊어져야겠수다. 그래야 해금강으루 다시마 따러 가지 않겠우?

海女2 그럼 북조선 구경은 우리들이 질 몬점 허게 되지 않겠우까?

똥똥한 海女 암, 생북 따문서 쉬엄쉬엄 놀문서 갑시다.

少女 그럼 김장군도 뵙게 되겠수다.

똥똥한 海女 뵙다마다.

少女 아이 좋아라.(제1막, 145쪽)

이는 역시 북의 관점에서 제주4·3을 그리는 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하겠다. 봉기 중인 5·10선거일에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 김석민 사령관이 유격대와 인민들에게 연설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노골화된다.

石民 우리의 背後에는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이 계시고 우리 뒤엔 남북전체인민의 대렬이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이 자나 깨나 그리든 아름다운 강산, 자유하고 평화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들의 목전에 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쏘여진 동무들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용감히 전진하십시오.(제4막, 152쪽)

김일성을 절대영웅으로 떠받들며 4·3 항쟁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도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함세덕의 <산사람들>은 “남의 민중들의 봉기를 통하여 남북통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다는 국토완정론의 전망”<sup>41)</sup>이 드러난 작품인 셈이다. 봉기의 당위성을 잘 부각시

키고 투쟁 양상도 구체화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북한 중심의 통일 과업 수행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월북한 봉기 지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삼아 북의 전략을 반영한 가운데 창작된 회곡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마무리

함세덕의 <산사람들>(1949~50)은 제주4·3을 형상화한 회곡이다. 특히 아직 4·3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북한의 문예지 『문학예술』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동안 <산사람들>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2막 3장의 작품임을 전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제3막과 제4막 텍스트가 발굴됨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군정 수뇌부의 대책회의 관련 내용이 제3막에, 입산자들의 생활과 토벌대와의 싸움이 제4막에 각각 그려짐으로써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5막까지 있는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1949년 평양에서 소년 빨치산 연락병 배역을 맡아 <산사람들> 공연에 참여했던 육철식이 5막 7장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내용과 짜임을 보더라도 육철식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작품은 1948년 해주, 1949년·1950년 평양 등 총 3회 무대에 올려졌고, 2회 공연 후에 현전하는 대본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사람들>의 등장인물을 보면, 부을나·삼바우처럼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도 있지만 실존인물과 관련된 인물들도 많다. 안재홍·송호성·김영배·조병옥 등은 실존인물이 그대로 나온 경우이며, 선우기승·부용철 등은 이름이나 성만 살짝 바꾸어 나온 경우이고, 김석민·최진렬

41) 김재용, 앞의 글, 183쪽.

등은 특정 인물(혹은 둘을 뒤섞은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등장인물의 선악구분과 대립구조도 뚜렷하다. 이러한 인물의 설정은 4·3이 반미 통일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4·3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생략되어 나타난다. 4월 3일의 무장대의 전과(경찰과 우익 인사의 피해) 규모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무장대와 국방경비대 사이에 합의되었던 4·28평화회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이는 무장대와 토벌대를 선악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봉기와 항쟁, 나아가 인민공화국 건설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종일관 김일성을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점에서도 북의 전략이 반영된 작품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사람들>은 무장대와 제주민중들의 입산 생활이 잘 드러난 작품이어서 주목된다. 입산 투쟁을 하다가 월북한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창작된 희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에서 그려진 입산 생활은 상당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함세덕의 <산사람들>은 4·3 당시의 입산 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 연구는 기존의 <산사람들> 텍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품에 나타난 4·3 인식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희곡으로서의 가치라든가 장르적 특성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승한, 『한나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김동윤,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론」,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177-210쪽.
- 김동윤, 「단선반대에서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도정—강승한 서사시 <한나산>론」,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181-204쪽.
- 김동윤, 「“나는 <산사람들>의 소년 연락병이었오”—강동정치학원 출신의 빨치산 생존자 육철식」, 『제주작가』 2008년 가을호, 207-234쪽.
- 김만수, 『함세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 김문홍, 「함세덕 회곡의 극적 전략과 의미 구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96.
- 김성현, 「함세덕 회곡 연구—해방 전후 회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수미, 「함세덕 회곡의 대중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9.
- 김재석, 「1940년대 후반기 함세덕 회곡 연구」, 『어문학』92, 한국어문학회, 2006, 323-349쪽.
- 김재용, 「4·3과 분단극복—북한문학에 재현된 4·3」, 『제주작가』6, 실천문화사, 2001, 172-184쪽.
- 노제운 엮음, 『함세덕문학전집』2, 지식산업사, 1996.
- 양의선, 『한나의 메아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 1998.
- 윤진현, 『풍경, 함세덕』, 다인아트, 2008.
- 이상우 엮음, 『함세덕』, 새미, 2001.
- 장혜전 편저, 『함세덕 회곡 선집』, 시인사, 199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한국극예술학회 편, 『함세덕』, 태학사, 1995.

함세덕, <산사람들> 제1막~제4막, 『문학예술』 1949.12~1950.3.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  
대학교 석사논문, 2003.

K C I

<Abstract>

A Study on "People in the Mountains" by

Ham Se-duk

- with focus on text issues and awareness on April  
3rd Uprising

Kim, Dong-Yun

"People in the Mountains" by Ham Se-duk (1949~50) is a play that depicts Jeju April 3rd Uprising. Particularly, it is worth drawing attention in that it was published in a literary magazine, *Literary Arts* while Jeju April 3rd Uprising was still going on.

Until now, studies on "People in the Mountai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esupposition that it consists of 2 acts and 3 scenes. However, act 3 and 4 have been found recently, thus a new approach is needed. And it is also likely that this play is composed of 5 acts. Lyuk Chul-sik clearly says that it had 5 acts and 7 scenes, who participated as a role of a messenger in the performance of "People in the Mountains." The overall content and plot makes his argument convincing enough. This work was performed three times: Haeju in 1948, Pyongyang in 1949 and 1950. It is assumed that the existing script was completed after the 2nd performance.

Some of its characters are fictitious figures created by its author such as Bu Eul-na and Sam Ba-u, but many of them are related to real figures. Ahn Jae-hong, Song Ho-sung, and Cho Young-bae are real figures without any change. In case of Sunwoo Gi-seung and Bu



Yong-chul, only their first or last names are changed a little. Kim Suk-min and Choi Jin-ryul are thought to be the mix of certain figures. It is safe to say that these characters are intentionally created in order to underscore Jeju April 3rd Uprising is an Anti-American unification struggle.

In this work, major events during this period are exaggerated or sometimes omitted. Damages armed parties caused to police and right wingers are exaggerated, and April 28 peace talks between armed parties and national security forces are not mentioned. This shows the intention to justify the cause of the building People's Republic as well as the uprising and struggle by setting the framework of good and evil.

Despite these limitations, "People in the Mountains" is worth attention because it shows the Jeju people's life in the mountains very well. Considering that this play is based on the witness given by people who fought in the mountains and then went to North Korea, it is safe to say that the life in the mountains depicted in this play has considerable reality. Therefore, Ham Se-duk's "People in the Mountains" is said to be significant in that it concretely reveals the life in the mountains during Juju April 3rd Uprising.

Key Words : Ham Se-duk, "People in the Mountains", Jeju April 3rd Uprising, 5 acts 7 scenes, the life in the mountains, reality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